

3세부터 7세 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김 수 정

곽 금 주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온정/애정적인 양육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고 3세경 애정적인 양육의 초기 값과 3세부터 7세까지 애정적인 양육의 변화율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만 7세 아동의 어머니와 학교 담임교사 96쌍들이다.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2년 간격으로 총 3회 걸쳐 3세, 5세, 7세에 어머니 보고로 측정했으며, 학교적응은 7세경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 보고와 교사 보고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세부터 7세까지 애정적인 양육의 변화를 알아보고 3세 양육의 초기 값과 3세부터 7세까지 양육의 변화율이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3세 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세 경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에서 개인차가 나타났다. 3세경,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은 7세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3세부터 7세까지 나타난 애정적인 양육의 변화율은 감소 속도가 완만할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그리고 또래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정도는 아주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경향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연구 결과는 애정적인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태도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데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요어 : 온정/애정적 양육, 학교 적응, 양육의 발달적 변화, 잠재성장모형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최적의 인지 및 사회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을 촉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11-005-B00011)

*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진시키는 환경의 한 측면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Bornstein & Tamis-Lemonda, 1989; Masur, Flynn, & Eichorst, 2005),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은 생의 초기 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해 왔다(Landry, Smith, & Swank, 2006; Landry, Smith, Swank, Assel, & Vellet, 2001;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

반응적인 양육이란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인지적으로 반응적일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온정(Darling & Steinberg, 1993)과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행동을 하는 애정-정서적 양육행동을 강조하는 양육 방식으로 정의된다. 특별히 Landry와 동료들(Landry et al., 2006)은 어머니의 반응성을 아동발달과 관련되는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가령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아동의 신호나 관심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인지적이고 언어적 특징 등으로 설명하였다.

생의 초기에 어머니의 애정적-정서적 양육행동은 어린 아동들에게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제공하며, 이런 반응은 어머니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고무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어린 아동들에게 사회적 신호에 계속 반응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양육자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촉진시킨다(Maccoby & Martin, 1983). 게다가 관심이 있는 것에 주의집중 하는 아동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경험이 계속 진행되게 함으로써 아동의 주의집중을 유지시키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집중의 유지는 부모의 언어적 입력을 처리할 아동의 능력과 일관된 관련을 보이므로 아동이 언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서 더 큰 유능성 발달을 초래시키게 한다(Akhtar, Dunham, & Dunham, 1991; Landry et al., 2006).

이와 같이 반응적인 양육 맥락 내에 있는 어머니들은 아동 신호에 대해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정서적 지지 및 풍부한 언어 사용을 통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시킨다(Smith, Landry, & Swank, 2000; Tamis-Lemonda et al., 2001). 따라서 온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어린 아동의 여러 발달 차원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을 보여 왔다(Caspi, Moffitt, Morgan, Rutter, Taylor, & Arseneault, Tully, Jacobs, Kim-Cohen, & Polo-Tomas, 2004; 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 Petrill & Deater-Deckard, 2004). 부모가 탐색과 학습을 격려하는 양육환경은 아동의 초기 인지, 언어, 및 사회·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이후 학교준비도, 학업성취,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통제 등과 긍정적 관련을 보였다(Bradley, Corwyn, Burchinal, McAdoo, & Coll, 2001).

Bradley, Caldwell, 그리고 Rock(1988)은 6개월 경,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10세 경 아동의 인지적 결과 간 관계를 조사했다. 결과에 의하면 영아기 부모의 반응적인 양육과 이후 아동의 인지적 결과 간의 관련성은 10세경에 부모의 일관된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에게서만 관찰되었다. 즉 아동들이 부모의 반응적 양육행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을 때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나타냈다.

Landry등(2001)에 의하면 시간에 따라 관찰되는 엄마-아동 상호작용에서 영아기와 학령 전 시기 동안에 부모로부터 일관적으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높은 수준의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낮은 수준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이나 비 일관적으로 온정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들보다 더 나은 인지적 사회적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영아기 부터 아동 초기를 거치면

서 온정적인 양육을 일관되게 경험했을 때 아동들이 긍정적 발달적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의 변화와 아동 발달적 결과 간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Chazan-Cohen, Raikes, Brooks-Gunn, Ayoub, Alexander Pan, Kisker, Roggman, & Fuligni, 2009). Chazan-Cohen등(2009)은 생후 14개월, 24개월, 36개월, 그리고 유치원 입학 전 시기인 5세에 걸쳐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4번 측정 한 후, 14개월경 양육 및 이후 양육에서의 변화와 5세 경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14개월경,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지지적인 양육과 시간에 걸쳐 증가하는 지지적인 양육은 5세 경 아동의 더 나은 정서조절과 더 높은 어휘 점수와 연합되었다. 즉 생후 14개월에 지지적 양육을 더 많이 받고, 연령 증가에 따라 더 증가하는 지지적 양육을 받는 아동들은 5세에 더 많은 글자와 단어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켰다.

이전에는 양육행동이 안정적이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Pianta, Sroufe, & Egeland, 1989). 그러나 Chazan-Cohen등(2009) 연구에서처럼 양육행동의 변화는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의미 있는 변화와 관련을 보였다. Hirsh-Pasek, 그리고 Burchinal(2006) 등의 연구에서도 초기 아동기 동안 어머니 양육 행동에서의 증가된 민감성은 아동의 더 나은 언어발달 및 인지 결과와 관련을 보였으며, 또 다른 연구(Taylor, Anthony, Aghara, Smith, & Landry, 2008)에서는 초기 아동기 동안 덜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하거나 부모 반응성에서 감소를 경험한 아동들은 8세 경 더 서투른 학습 결과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에서의 변화와 아동발달 간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Chazan-Cohen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14개월에 어머니의 더 많은 우울 증세와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생후 5년 동안에 이러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증가는 아동의 더 많은 행동문제를 예측하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모 우울을 경험한 아동들은 더 어설픈 인지 결과를 초래했으며(Petterson, & Albers, 2001), 내재화와 외재화 행동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Trapolini, McMahon, & Ungerer, 2007). Campbell, Matestic, Stauffenberg, Mohan, 그리고 Kirchner(2007)는 생의 첫 해에 걸쳐 엄마 우울의 증가는 이후 학교 입학에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포함하여 인지기능에서 문제와 관련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생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양육의 특징은 이후 아동기 발달의 여러 영역과 분명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최근 연구들(Chazan-Cohen et al., 2009; Landry et al., 2001; Taylor, et al., 2008)을 통해 어머니의 반응적인 애정적 양육행동이 초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경험되었을 때 아동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기 초기 동안 양육에서의 변화와 아동기 발달적 결과 간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은 생의 초기부터 아동기 초기까지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Chazan-Cohen et al., 2009; Taylor, et al., 2008; Trapolini, et a., 2007).

그러나 아동초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많은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양육기관 및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또래나 교사와의 새로운 관계

를 형성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영역에서의 심리적 특성들이 좀 더 성숙하게 분화와 발달을 이루면서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되는 아동 초기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동 중기에 걸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이런 양육에서의 변화와 아동 발달 간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의 초기부터 아동초기에 이르기까지 반응적인 양육의 증가는 아동기 발달적 결과와 긍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Chazan-Cohen et al., 2009; Hirsh, et al., 2006; Taylor, et al., 2008), 아동초기부터 아동기 동안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에서의 변화와 아동기 발달 간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즉 초기 양육과 이후 아동기 결과 간 확립된 연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도 시간에 따른 양육에서의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만 3세경에서부터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걸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런 변화와 아동 발달 간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의 심리적인 속성들은 아동이 처해 있는 근접 과정 및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되어지는 데(Bronfenbrenner, & Morris, 1998), 특히 부모-아동 상호작용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자율적 지지 등의 애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과 긍정적 관련을 보인다(Grolnick & Gurland, 2002; Ryan & Adams, 1995). 초기 학교 적응은 이후 전반적인 학령기 적응을 예측해 주는 아동기 주요 발달 과제가 되며(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되므로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김수정, 광금주, 2010에서 재인용).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엄마의 정서적 지지와 자율적 지지는 아동의 학문적 성취 (Grolnick & Ryan, 1989; Pianta & Harbers, 1996; Stright & Neitzel, 2003), 사회적 유능성 (Grolnick & Ryan, 1989; Pianta, Nimetz, & Bennett, 1997), 교사-아동 관계(Barth & Parke, 1993; Pianta et al., 1997;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그리고 또래 관계(Parke & Ladd, 1992)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분석되어진 것으로 양육에서의 종단적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3세, 5세, 7세에 걸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을 3번 측정하여 애정적 양육이 아동 중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종단적으로 알아보고 3세 경, 온정/애정적인 양육과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온정/애정적인 양육에서의 변화 경향성이 7세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잠재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만 3세경부터 7세에 걸쳐 어머니의 온정/애정적인 양육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두 번째로 3세 경 온정/애정적인 양육과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온정/애정적인 양육에서의 변화가 7세 경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들은 한국연구재단의 2011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약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이다. 3세, 5세, 7세에 모두 참여한 아동은 122명이나 이 중, 아동의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아동은 96명으로 4년간 4개 변인을 측정하는 과정에 모두 참여한 아동은 총 96명이다. 이들 아동들은 서울, 인천, 기타 경기 지역에 거주한다. 이 중, 남아가 46(47.9%)명이고 여아가 50명(52.1%)이다. 만 3세를 기준으로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는 36.5세(SD=3.76)이고 어머니는 33.8세(SD=3.77)이다. 아버지의 16.7%가 고졸, 5.2%가 전문대졸, 60.4%가 대졸, 10.4%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어머니의 21.9%가 고졸, 8.3%가 전문대졸, 56.3%가 대졸, 7.3%가 대졸 이상이었다. 가계수입은 평균 380만원(SD=201.54)이었다.

측정도구

양육태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200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거부, 그리고 통제 5개 요인에 대해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가되고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3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애정 영역인 8개 문항을 가지고 온정/애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8개 문항 점수를 모두 합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더 온정/애정적 양육 양육태도를 갖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3(2006년), .69(2008년), .74(2010년)이다.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척도로, 담임교사를 통해 초등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며, 총 35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입학 후 3-4개월 후 각 담임 교사에게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했다. 지성애와 정대현(2006)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생활 적응이 .97, 학업수행적응이 .96, 또래적응이 .96, 교사적응이 .84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학교생활적응이 .95, 학업수행적응이 .93, 또래적응이 .94, 교사적응이 .81이다.

절차 및 분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맨 처음 2006년 6-9월(만 3세)에 측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7-10월(만 5세)에 그리고 2010년 7-10월(만 7세)에 걸쳐 총 3회 측정되었고 아동의 학교적응은 2010년에 아동의 각 학교 담임선생님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아동이 만 3세 때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어머니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이후 2년 간격으로 두 번 동일한 설문지가 아동의 가정으로 발송되었다. 발송된 설문지는 어머니가 직접 작성 후 반송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4개월이 지난 다음, 아동의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발송되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

적인 적응 상태를 관찰한 후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현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SPSS 12.0과 AMOS 5.0을 활용하였다. 빈도 및 상관관계 등의 분석에는 SPSS 12.0을 사용하였고 연구 문제의 분석은 AMOS 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의 틀 내에서 만들어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의 변화 추정을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으로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변인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형 중 하나이다. 잠재성장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 변화 뿐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유숙경, 2004). 현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검증하는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

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로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이용하였다.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결 과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은 표1에 제시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정/애정 양육태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별 변인 간 상관을 보면, 온정/애정 양육은 서로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375-.527), 온정 양육(2010)은 학교생활적응($r=271$,

표1. 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1. 온정/애정양육(2006)	1						
2. 온정/애정양육(2008)	.527***	1					
3. 온정/애정양육(2010)	.375***	.437***	1				
4. 학교생활적응	.073	.061	.271**	1			
5. 학업수행적응	.096	.121	.308**	.685***	1		
6. 또래적응	.122	.084	.244*	.598***	.658***	1	
7. 교사적응	.103	-.029	.078	.342**	.639***	.489***	1
<i>M</i>	28.87	28.52	28.23	45.62	44.47	31.12	19.87
<i>SD</i>	2.78	2.55	3.07	9.38	8.41	6.74	3.33

* $p < .05$, ** $p < .01$, *** $p < .001$

$p < .01$), 학업수행적응($r=308, p < .01$) 또래적응($r=.244, p < .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수행적응($r=685, p < .001$), 또래적응($r=.598, p < .001$), 교사적응($r=342, p < .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학업수행적응은 또래적응($r=658, p < .001$), 교사적응($r=639, p < .001$) 그리고 또래적응은 교사적응($r=489,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태도의 분석모형

온정/애정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변인의 변화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무 변화모형이나 선형 변화모형은 측정하는 시점이 세 시점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으며, 비선형 모형은 측정시점이 네 시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비선형 모형은 적용하지 않고 무 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이수진, 홍세희 그리고 박중규, 2005). 세 시점사이에서 변화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선형 변화모형이 채택될 것이고, 일관성 있게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 변화모형이 채택될 것이다. 변인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경로도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변화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온정/애정 양육태도의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 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 모두 χ^2 이 매우 작으며,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 값이 모두 적절하였다. 두 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값은 유의하지 않았으나($\Delta\chi^2=4.766, \Delta df=3$) 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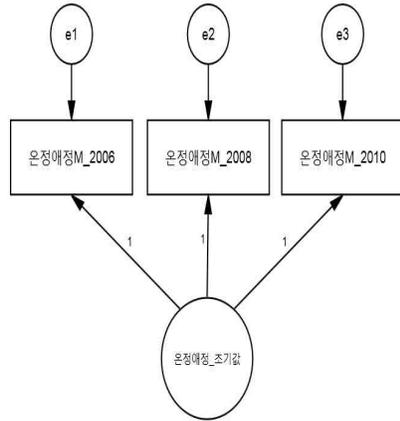


그림 1. 무 변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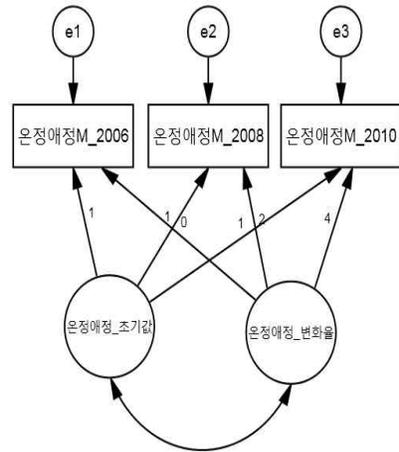


그림 2. 선형 변화 모형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으므로 선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형 변화 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온정/애정 양육의 무 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 적합도

변화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 변화모형	4.792	4	.990	.986	.046
선형 변화모형	0.026	1	1.050	1.000	.000

표 3. 온정/애정 양육의 선형 변화 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온정/애정양육	3.608***	-.020*	.071***	.002	-.005

* $p < .05$, *** $p < .001$

온정/애정 양육의 초기치 평균과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한 개인의 온정/애정 양육태도의 값은 세 시점에서 변화를 보이며, 그 변화기울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정적 양육태도의 초기 값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온정적 양육태도의 초기 값에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서 나온 양육의 초기치 값 3.608은 만 3세 경, 어머니들의 애정/온정적 양육 정도를 5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나온 값으로 3세 경 어머니들의 애정적 양육 정도가 중간 정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의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3세경 아동에게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높게 보였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애정/온정적인 양육 태도를 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정/애정 양육태도의 초기 값과 변화율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온정/애정 양육태도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온정/애정 양육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각 측정 변인들의 오차변수들이나 내생변인들의 잔차들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반복측정 연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 시점에서의 상황적인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반복측정치의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온정/애정 양육의 변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4 참조),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이 학교 적응 4개의 하위 영역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만 3세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가 만 7세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다(20.25, $p < .01$). 즉 온정/애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의 감소하는 속도가 완만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아동의 학업수행적응에도 영향을 주었다. (15.07, $p < .05$). 이는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 변화에서 감소하는 속도가 완만할수록 아동은 학교에서 학업수행적응을 더 잘 할 있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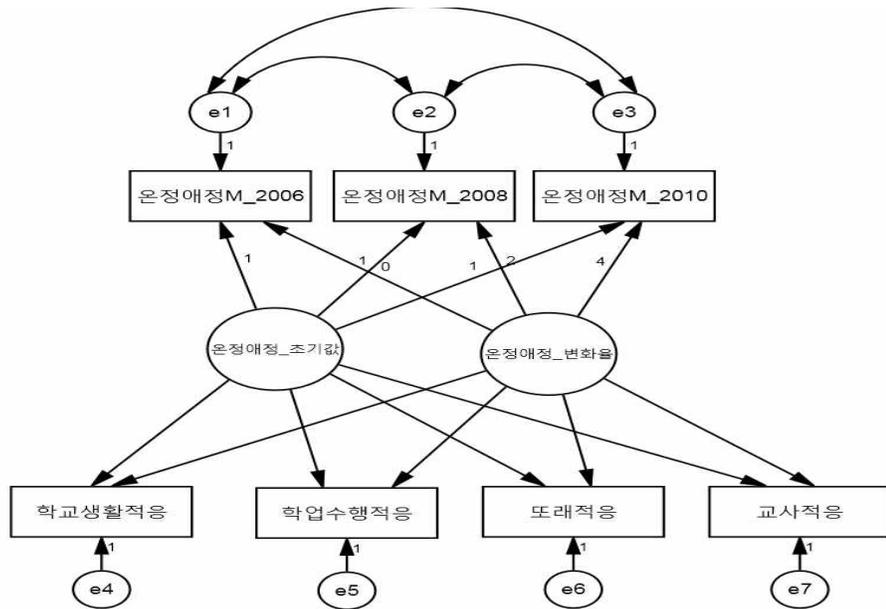


그림 3 온정/애정 양육의 변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0.120 ($df=10$)	.999	.999	.011

* $p < .05$, ** $p < .01$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
학교생활적응 <--- 온정애정_초기값	13.981	15.043	0.427	0.929
학업수행적응 <--- 온정애정_초기값	21.223	24.532	0.712	0.865
또래적응 <--- 온정애정_초기값	18.127	20.77	0.552	0.873
교사적응 <--- 온정애정_초기값	25.088	32.901	0.992	0.763
학교생활적응 <--- 온정애정_변화율	20.25**	7.257	0.684	2.79
학업수행적응 <--- 온정애정_변화율	15.065*	7.524	0.559	2.002
또래적응 <--- 온정애정_변화율	14.687*	6.933	0.495	2.118
교사적응 <--- 온정애정_변화율	-2.732	8.031	-0.119	-0.34

한다. 그리고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학교에서의 또래적응에도 영향을 주었다(14.69, $p < .05$). 즉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의 감소 속도가 완만할수록 아동들은 또래적응을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논 의

현 연구에서는 만 3세경부터 만 7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만 3세 경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의 초기 값과 3세 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에서의 변화율이 7세 아동의 학교 적응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 문제인 아동기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아동 초기이후부터 아동 중기에 걸쳐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 3세경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들 마다 차이를 보였으나,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양육태도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3세 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들마다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온정/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에서의 완만한 감소를 보인 현 연구의 결과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동 초기부터 아동 중기에 걸쳐 많은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또래나 교사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적으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이전처럼 항상 옆에 두고 돌볼 때와는 달리 온정적이고 애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양적으로 감소될 수 있으므로 야기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여러 영역에서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들이 좀 더 성숙하게 분화와 발달을 이루면서 자조행동 및 자율적 놀이와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되면서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에서 자연스럽게 감소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연구 문제인 만 3세 경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의 초기 값과 3세 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에서의 변화율이 7세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 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3세 경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은 7세 경 아동의 학교적응 각 하위영역, 가령,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 등의 어떠한 것라도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즉, Chazan-Cohen등(2009)의 연구에서는 생후 14개월 경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이 5세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현 연구에서는 3세경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7세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정적 양육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주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현 연구와 Chazan-Cohen등(2009)의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을 측정하는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 시기마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애정적 양육의 영향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생후 14개월 경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5세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지만, 3세경의 애정적 양육이 7세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육태도의 초기 값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온정/애정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을 보였다. 즉, 온정/애정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의 감소 속도가 완만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아동 초기부터 아동 중기에 걸쳐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이 서서히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 변화율의 감소 속도가 완만할수록 학업수행 적응과 또래 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아동 초기부터 아동 중기에 걸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이 서서히 감소한다 해도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이나 또래 관계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약해 보면 3세 경 온정/애정 양육태도의 초기 값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애정적인 양육 태도의 완만한 감소율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그리고 또래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아동 초기부터 중기에 걸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이 완만하게 서서히 감소되어도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 현 연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몇몇 연구들(Chazan-Cohen et al., 2009; Landry et al., 2001; Taylor et al., 2008)의 결과와 다른 맥락처럼 보일 수 있다. 즉, 생의 초

기부터 5세 까지 애정적인 양육의 증가가 5세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 Chazan-Cohen등(2009)의 연구와 아동 초기 동안 반응적인 양육에서의 감소를 경험한 아동들이 8세 경 서투른 학습 결과를 보였다는 Taylor등(2008)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아동 초기 동안 온정/애정적인 양육을 일관적으로 받았을 때 아동기 긍정적 발달적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Chazan-Cohen et al., 2009; Landry et al., 2001; Taylor et al., 2008)의 결과와 현 연구 결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현 연구에서 보면 만 3세부터 만 7세 까지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의 감소 속도가 완만할수록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적응, 그리고 또래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 3세 경 이미 확립된 온정/애정적 양육 정도가 4년 동안에 아주 서서히 근소하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아동들은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을 일관적으로 경험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정도에서 완만한 감소 경향은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이외에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아동의 삶에 일정 부분 차지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면서, 아동 초기 이후부터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정도가 다소 근소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들도 어머니로부터 신체 및 심리적으로 부분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했던 이전 시기보다 스스로 자조행동이 나 놀이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정도에서 양적으로 근소한 감소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연구 결과에서처럼 비록 완만한 감소율을 보였음에도 아동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정적 양육이 일관되게 경험될 수 있음으로써 학교적응의 여러 영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이전 연구에서는 애정적인 양육이 학교적응과 긍정적 관련(Grolnick & Gurland, 2002; Ryan & Adams, 1995)을 보였을 뿐 아니라 아동의 학문적 성취(Grolnick & Ryan, 1989; Pianta & Harbers, 1996; Stright & Neitzel, 2003)와 또래 관계(Parke & Ladd, 1992)에 긍정적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에 비해 현 연구는 특정 시점 동안에 어느 정도 일관되게 받아들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육적 특징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Chazan-Cohen et al., 2009; Landry et al., 2001; Taylor et al., 2008)에서는 생의 초기나 아동 초기 까지 양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현 연구에서는 아동 초기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걸쳐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현 연구 결과 등을 요약해 보면 첫째, 3세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태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세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들마다 애정적 양육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3세 때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정도는 7세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3세부터 7세에

걸쳐 애정적인 양육이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우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현 연구 결과는 애정적인 양육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들의 애정적인 양육에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데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적 특징을 3세, 5세, 7세까지 총 4년간 측정하여 좀 더 장기적 접근으로 양육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으며, 특히 초기 학령기 학교적응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초기 학교적응과 긍정적 관련을 보이는 여러 변인 중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매우 영향력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김수정, 곽금주, 2011; Grolnick & Gurland, 2002; Stright & Neitzel, 2003).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적 특징의 변화를 좀 더 장기적인 종단 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발달적 결과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특징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에 대해서도 종단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변화 추이를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종단적 변화 경향성에 대한 분석으로 아동의 학교적응 및 다양한 발달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이해를 근간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포함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정, 광금주(2011). 초기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양육 간 관계에 대한 아동기질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55-171.
- 김수정, 광금주(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 1179-1197.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유숙경(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131-146.
- Akhtar, N., Dunham, F., & Dunham, P. J. (1991). Directive interactions and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The role of joint attentional focus.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41-49.
- Barth, J. M., & Parke, R. D. (1993). Parent-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on children's transition to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39, 173-195.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1989).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Maternal responsivenes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pp. 49-61). San Francisco: Jossey-Bass.
- Bradley, R. H., Caldwell, B. M., & Rock, S. (1988). Home environment and school performance: A ten year followup and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environmental action. *Child Development*, 59, 852-867.
- Bradley, R. H., Corwyn, R. F., Burchinal, M.,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Relations with behavioral development through age thirteen. *Child Development*, 72, 1868-1886.
-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human development* (5th ed., pp.993-1028). New York: Wiley.
- Campbell, S. B., Matestic, P., von Stauffenberg, C., Mohan, R., & Kirchner, T. (2007).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202-1215.
- Caspi, A., Moffitt, T. E., Morgan, J., Rutter, M., Taylor, A., Arseneault, L., Tully, L., Jacobs,

- C., Kim-Cohen, J., & Polo-Tomas, M. (2004). Maternal expressed emotion predicts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problems: Using monozygotic-twin differences to identify environmental effects on behavi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0*, 149-161.
- Chazan-Cohen, R., Raikes, H., Brooks-Gunn, J., Ayoub, C., Alexander Pan, B., Kisker, E., Roggman, L., & Fuligni, A. (2009). Low-Income Children's School Readiness: Parent Contributions over the First Five Yea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6), 958-977.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Grolnick, W. S., & Gurland, S. T. (2002). Mothering: Retrospect and prospect. In J. P. McHale & W. S. Grolnick (Eds.),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families* (pp. 5-33). Mahwah, NJ: Erlbaum.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al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 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Hirsh-Pasek, K., & Burchinal, M. (2006). Mother and caregiver sensitivity over time: Predicting language and academic outcomes with variable- and person-entered approaches. *Merrill-Palmer Quarterly, 52*, 449-485.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ndry, S. H., Smith, K. E., & Swank, P. R. (2006). Responsive parenting: Establishing early foundations for social, communication, and independent problem-solv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627-642.
-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Assel, M. A., & Vellet, S. (2001). Does early responsive parenting have a special importance for children's development or is consistency across early childhood necessar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87-403.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s.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101). New York: Wiley.

- Masur, E. F., Flynn, V., & Eichorst, D. L. (2005). Maternal responsive and directive behaviours and utteranc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lexic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32*, 63-91.
- Parke, R. D.,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Petrill, S. A., & Deater-Deckard, K. (2004). Task orientation, parental warmth and SES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shared environmental variance in general cognitive ability in early childhood: Evidence from a twin study. *Developmental Science, 7*, 25-32.
- Petterson, S. M., & Albers, A. B. (2001). Effects of poverty and maternal depression on early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2*, 1794-1813.
- Pianta, R. C., & Harbers, K. L. (1996). Observing mother and chil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307-322.
- Pianta, R. C., Nimetz, S. L., & Bennett, E. (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63-280.
- Pianta, R. C., Sroufe, L. A., & Egeland, B. (1989).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maternal sensitivity at 6, 24, and 42 months in a high-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60*, 481-187.
- Rohner, R. P.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43-10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yan, B. A., & Adams, G. R. (1995).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 model. In B. A. Ryan, G. R. Adams. (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3-28). Thousand Oaks, CA: Sage.
- Smith, K. E., Landry, S. H., & Swank, P. R. (2000). The influence of early patterns of positive parenting on children's preschool outcom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 147-169.
- Stright, A. D., Gallagher, C. G.,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Stright, A. D., & Neitzel, C. (2003). Beyond parenting: Coparenting and children's classroom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31-40.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2*, 748-767.

- Taylor, H. B., Anthony, J. L., Aghara, R., Smith, K. E., & Landry, S. H. (2008). The interaction of early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on later decod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9*, 188-207.
- Trapolini, T., McMahon, C. A., & Ungerer, J. A. (2007).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adjustment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 794-803.

1차 원고 접수: 2013. 04. 09.

수정 원고 접수: 2013. 05. 27.

최종 게재 결정: 2013. 05. 29.

The influence of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t 3 years and developmental change of parenting from 3 to 7 years on school adjustment

Su-Chung Kim

Keumjoo Kwak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changes in affective parenting from 3 to 7 years of age, 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 3 years and changes in parenting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on school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96 dyads of mothers and classroom teachers. Affective parenting was measured at intervals of 2 years in 3-, 5-, and 7-year-old children (3 measurements total) by reports from the mothers;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via teachers' reports. A latent growth model was utilized to examine developmental changes in affective parenting, 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 3 years and changes in parenting from 3 to 7 years o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mothers' affective parenting for the 3- to 7-year-old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slowly, and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mothers' affection for the 3-year-old children. Mothers' affective parenting at 3 years did not affect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7-year-olds, but an association was found showing that the slower the rate of decline in changes in affective parenting from 3 to 7 years,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nd peer adjustmen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thers' affective parenting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very slowly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and that this tendenc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eywords : *affective parenting,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changes in parenting, latent Growth*

Model

